

## 성격과 건강상태에 따른 SNS 이용 행태 -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

장혜정<sup>1)</sup> · 손희전<sup>2)</sup>

### 요약

본 연구는 BIG5 성격별 특성 강도와 건강상태에 따라 SNS 이용 행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중심으로 살펴 본 실증분석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성격 특성과 SNS 이용 시간의 관계에서는 외향성과 정서불안이 성격 특성 강도가 높은 그룹일수록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이 길게 분석되었다. 성실성은 성실성 특성 강도가 낮은 그룹이 성실성이 강한 그룹에 비해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이 길었다. 성격 특성과 SNS 이용 목적과의 연관에서는 정서불안과 친화성 그리고 개방성이 SNS의 이용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서불안은 정보교류, 친화성은 친목/인맥관리, 개방성은 개인사정리에서 성격 특성의 강도가 높은 그룹일수록 SNS 이용 목적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정서불안은 친목/인맥관리, 친화성은 정보교류와 재미에서 성격특성의 강도가 높은 그룹일수록 SNS 이용 목적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와 SNS 이용 시간의 관계에서는 건강 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 차이가 있었으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비교하여 볼 때 건강상태가 허약할수록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와 SNS 이용 목적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보교류와 개인사 정리가 SNS의 주목적인 경우는 허약 그룹이 타 그룹들에 비해 SNS 이용 비율이 가장 높고, 건강 그룹이 타 그룹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목/인맥관리가 SNS의 주목적인 경우는 건강 그룹의 SNS이용 비율이 가장 높고, 허약 그룹의 SNS 이용 비율이 가장 낮았다.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는 일반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친구나 선후배 동료 등과의 인맥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뜻하는데,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사전(2012)은 이러한 SNS를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웹을 기반으로 하여 사람들이 기존의 인맥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새로운 인맥을 만들 수 있는 기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반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소셜 미디어의 대표적인 수단의 하나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정보공유, 인맥관리, 자기표현 등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장은정과 장혜정, 2013에서 재인용).

SNS의 특징으로는 참여,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 등이 있으며, 첫 번째로 꼽히는 특징이 바로 SNS의 참여(Participation) 촉진 기능이다.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상호 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식, 의견, 견해 및 피드백을 공유하면서 특정 주제에 참여하게 되며 이러한 활동은 미디어와 개인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둘째는 공개(Openness) 기능인데, 사용자 간의 참여의 용이성과 의견에 대한 개방성으로 사용자 간의 정보 공유, 댓글, 투표 등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SNS는 대화(Conversation)를 하게끔 하며 여기서의 대화는 정보제공자와 소비자가 쌍방향으로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지향한다. 넷째, SNS는 동일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이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지원한다. 다섯째, SNS는 각 주체들을 연결(Connectedness)해 주어 다양한 매체들의 조합과 이들 사이에서 링크를 통해 관계의 형성을 촉진해 준다(박미현 외, 2010; 장은정과 장혜정, 2013에서 재인용).

그간의 SNS 관련 연구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이용 동기와 사용 실태(이종연, 2012; 심미선과 김은미, 2011), 스마트폰과 SNS 중독(강현욱, 2013; 전중수, 고영삼, 엄나래, 2012) 등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SNS를 네트워크 즉 기존의 인간관계, 특히 오프라인에서의 인간관계와 독립적으로 서비스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SNS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나 정치성향 등에 대한 논의(하승태, 2012)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SNS가 사람들간의 인맥형성, 특히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에 주로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인 커뮤니케이션 및 사적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성격 특성과 건강 상태에 따라 SNS의 이용 시간과 이용 목적과 같은 이용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SNS 이용자와 SNS를 이용하게 되는 원인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즉, SNS 이용자의 특성을 개인적인 성격 차원과 건강 상태 차원도 반영하여 심층분석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용자가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정신 건강 차원과 연결하여 SNS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는 있었으나 정보교류나 인맥형성, 재미 등과 같이 SNS가 이용 목적과 활용하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충분히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을 시사해 주는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SNS 관련 KEEP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학생의 SNS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성격 특성에 따라 SNS 이용 시간과 이용 목적에 차이가 있는지, 건강 상태가 허약한지, 양호한지에 따라 SNS 이용 시간이나 이용 목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특성인 성격과 건강상태가 SNS의 이용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기초 연구로서 수행되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가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 특성과 건강 상태에 따라 SNS 이용 시간과 이용 목적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설정되었다. 가설을 설정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스마트폰과 SNS의 사용 형태 및 이용 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5가지 성격 특성과 건강 상태에 따른 SNS 이용 행태의 전반적인 차이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1. 성격특성(외향성, 신경증,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의 정도에 따라 SNS 이용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2. 성격특성(외향성, 신경증,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의 정도는 SNS 이용 목적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 가설3. 건강상태(허약, 보통, 양호) 정도에 따라 SNS 이용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4. 건강상태(허약, 보통, 양호) 정도는 SNS 이용 목적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대학생의 SNS 이용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전종수 외, 2012)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주중)은 평균 2.7시간으로 2~3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29.6%, 1~2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27.3%로 가장 높았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평균 2.9시간으로 다소 높아졌으며 2~3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28.5%로 가장 많았다. 주로 모바일인스턴트 메신저<sup>3)</sup> 사용 비율이 95.9%로서 압도적으로 높았고 뉴스검색(88.0%), 일반적인 웹서핑(81.2%), 음악(81.0%)이 그 뒤를 이었다. 이용목적으로 분류했을 경우에도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비율이 78.8%로 가장 높았고 자료 및 정보획득(65.8%)과 여가(63.5%)가 뒤를 이었고 교육/학습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6.9%에 그쳤다.

대학생 스마트폰 이용의 주 목적으로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71.5%)로서 가장 높았고 뉴스검색, 온라인게임, 일반적인 웹서핑, 음악 순이었다. 1일 평균 모바일 메신저 이용횟수는 평균 31.6회로서 31회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28.0%로 가장 많았다. 모바일 메신저 이용시간

3)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채팅, 사진/동영상 공유, 음성 및 영상통화,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일반적인 문자메시지 포함). 예) 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틱톡 등

은 1회 평균 10.7분이었으며, 1-5분 사용하는 비율이 60.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스마트폰 사용량 중 모바일 메신저 사용 비율은 평균 62.9%로 높게 나타났으며 78.5%가 주로 학교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주로 일대일 채팅(96.4%), 그룹 채팅(69.4%), 정보 및 파일 교환(62.8%)로 나타났고 게임이나 쇼핑을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모바일 메신저의 과다사용으로 경험했던 행동을 살펴보면, 학업 및 업무방해(12.0%), 사용조절 자체가 어려움(10.6%), 음란물 등 불필요한 정보노출(6.5%)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UniversalMccan(2010)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글로벌 이용자는 메신저나 SNS와 같은 어플을 많이 이용하는 반면에 한국 대학생들은 지역기반 어플(교통, 포털사이트 어플 등)을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2012)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어플로는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의 메신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유효중, 2013에서 재인용).

최 봉(2011)의 스마트폰을 통한 SNS 이용 행동 및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SNS의 정보를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50.7%가 'SNS는 일상생활 및 업무, 학업 등에 유용하다'라고 하였으며, 47.8%가 'SNS를 통해 정확도가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SNS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정보습득을 위한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SNS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가 국내 인터넷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0 新 인터넷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이내 미디어 이용 패턴의 변화 중 SNS가 61.9%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효중(2013)의 연구에서도 SNS 이용자 집단은 비이용자 집단과 비교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정보추구 동기와 관계추구 동기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보관련 어플과 사이트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SNS와 성격 특성

SNS의 특성은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상호작용이 실제 이용자들의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초기에는 개인의 성향과 속성이 어떻게 SNS 맥락 속에서 발현되고 온라인에서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루기 시작해서 점차 SNS를 통한 상호작용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연구결과 SNS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이용 동기는 대인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었다(Krishna, A., 2011).

한편 Back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개인의 이름과 관련 정보를 밝히는 온라인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외향성이 대인관계를 보다 지속적으로 형성하게 하며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환경이 아니라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노출, 제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상호작용은 분명 전자와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채팅, 블로그와 다르게 자신이

노출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대인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임연수(2010)는 SNS이용의 중요한 요소는 사교성으로 사교성은 외향성에 속하는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자기 노출을 즐겨하며, SNS 환경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사소통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였다.

이어서 최세경 외(2012)의 연구에서는 ‘자기노출, 커뮤니케이션 회피성향, 외향성’의 개인적 커뮤니케이션 성향이 모바일 SNS를 통한 상호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연구 분석 결과 커뮤니케이션 성향으로서 자기노출과 외향성이 SNS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두려움, 수줍음 등과 유사한 회피성향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이것은 SNS가 기본적으로 자기노출, 공개성, 보여줌을 전제로 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는 점에서 회피성향의 정도가 이용자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유추하였다. 두 번째로 자기노출과 외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SNS를 이용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 또한 모바일로 SNS를 이용하는데 더 많은 애착을 느끼는 사람이 SNS를 활용한 대인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 이용 후 대인관계가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SNS 상호작용은 대인관계에 매우 높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상호작용이 실제 대인관계를 축소시킨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SNS를 통해 폭 넓은 사회적 범주를 형성하고 기존 대인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데 온라인 상호작용이 기여하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한편 김연중(2007)의 연구에서는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내향성이 큰 사람이 보다 온라인 환경을 좋아하고 정서적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인해 SNS에서도 정서적인 유대감을 잘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격특성이 SNS 이용 행태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올 것인가에 주목하여 경험에 대한 개방성 (Open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신경증(Neuroticism)으로 구성된 McCrae & Costa의 BIG5 이론을 활용하여 성격 특성에 따른 SNS 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

BIG5<sup>4)</sup>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성격 특성을 5개 요인으로 나누고, 이들 5개 요인은 개인들 간의 차이뿐 아니라 행동까지도 포괄하여 설명하는 이론이다.

BIG5 요인 중 개방성은 상상력과 호기심, 모험심, 예술적 감각 등으로 보수주의에 반대되는 성향이고,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가정환경, 교육, 문화적 배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성이며, 성실성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성향으로서 얼마나 근면, 성실하며 조직적 인가를 반영하며, 신뢰성(Dependability), 성취의지(Will to Achieve)라고도 한다. 다음으로 외향성은 다른 사람과의 사교, 자극과 활력을 추구하는 성향으로서 이때, 낮은 외향성(즉, 내향성)은 높은 외향성의 반대개념이 아닌 외향적인 특징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에 주의가 필

4) ‘Big’이란 각각의 요인이 수많은 특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BIG Five’를 정의하는 성격 특성의 분류는 광범위함.

요하다. 예를 들어 외향성 특징의 ‘상냥함’은 낮은 외향성으로 갈수록 불친절로 변하는 것이 아닌, ‘상냥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친화성은 우호성 (Agreeable), 친근성(Friendliness), 사회적 동조성(Social conformity)이라고도 하는데 타인에게 반항적이지 않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향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신경증(정서불안정성)은 분노, 우울함, 불안감과 같은 정서적 불안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서적 민감성(Emotional Sensitivity) 또는 반대 속성인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으로 불리기도 한다.

<표 1> BIG 5요인과 특성

← 낮은 점수 (특성)	요 인	→ 높은 점수 (특성)
보수적 성향, 관습 중시, 현실적, 제한된 흥미 영역, 예술에 적은 관심. 고민 없는 삶을 낮게 평가 등	<b>O</b> 개방성 (Openness), 지적 자극이나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	지적 호기심 많음, 광범위한 흥미영역, 독창적, 창의적, 자유롭고 풍부한 상상력, 예술적 표현 선호 등
목적이 없음, 믿을 수 없음, 게으름, 부주의함, 약한 의지 등	<b>C</b> 성실성 (Conscientiousness)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 등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	믿음직함, 근면, 정리정돈, 철저함, 세심함, 책임감, 계획적, 체계적, 신중, 열심히 일함 등
적은 말수, 냉정함, 과업중심적, 조용함, 활기 없음. 좁은 인간관계 등	<b>E</b> 외향성 (Extraversion)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 또는 관심을 끌고자 하거나 타인을 주도하려는 정도	사교적, 적극적, 말하기 좋아함, 사람중심, 낙관적, 즐거움 추구, 상냥함 등
냉소적, 무례, 의심 많음, 비협조적인, 무관심, 자기중심적, 많은 질투, 적대적 등	<b>A</b> 친화성 (Agreeableness)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	이타심, 애정, 도덕성, 배려, 겸손, 수용성, 휴머니즘, 부드러운 마음 등
침착함, 안정적인, 강건함, 자기충족적인 등	<b>N</b> 정서불안정성 (Neuroticism) 자신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되었고, 세상을 뜻대로 통제할 수 있으며, 또한 세상을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의 정도	걱정함, 초조함, 감정의 변덕, 불안정함, 부적절한 감정 등

\* 주. 위키백과에서는 5가지 성격 특성(Big Five personality traits)요인의 각 첫 스펠링을 따서 OCEAN 이라고도 부름.

\* 출처 : 손희전(2013). 청년층의 BIG5 성격 특성. The HRD Review 2013년 7월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손희전(2013)은 한국교육고용패널 9차(2012)년도 자료를 토대로 청년층의 BIG5 성격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청년층의 성격특성은 외향성이 높은 성향과 정서불안정성이 낮은 성향, 그리고 친화성, 성실성, 경험에 의한 개방성은 높은 성향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은 외향성과 친화성, 개방성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불안정성과 성실성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아울러 SNS 사용 여부는 사용집단이 외향성 10.53점, 정서불안 7.89 점, 친화성 11.02점, 성실성 9.99점, 개방성 9.86점으로 미사용집단보다 외향성은 0.55점, 친화성은 0.50점, 성실성은 0.25점, 경험에 의한 개방성은 0.27점 더 높고, 정서적 불안정성은 0.30점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SNS의 사용이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었다.

### 3. SNS와 건강상태

최근 스마트폰으로 인해 새로운 정보나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SNS를 통해 당장 알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이들이 우리사회에 급속도로 늘고 있으며 또한 습관적으로 정보에 끌려 다니는 데에 따르는 피로현상도 심해지고 있다(전중수 외, 2012). 대표적 SNS인 페이스북은 전체 사용자의 50%에 가까운 약 3억 5,000만 명이 SNS 중독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10개국 1,000명의 대학생 중 대다수가 SNS 단절에 따른 불안과 좌절감, 고립감 등을 심각하게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ickface-book, 2010). 또한 인터넷에 중독된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대학생활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시험이나 과제를 하는 것에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공부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자신의 학점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송명준, 권정혜, 2000에서 재인용).

이인숙과 조주연(2012)의 연구에 따르면, SNS 중독은 1일 SNS 사용시간과 인터넷의 사용 목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1일 SNS 사용시간이 4시간 이상인 집단의 SNS 중독점수가 가장 높았고 1시간 미만인 집단의 SNS 중독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오윤경(2012)의 연구에서 SNS 중독경향성과 SNS 사용시간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성인 대상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박용민(2011)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중독이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라도 인터넷 사용시간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SNS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오윤경(2012) 연구결과 SNS 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우울 증상이 있는 인터넷 중독자들일수록 낮은 자존감, 거절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 인정욕구 등과 함께 우울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인터넷에 더욱 빠져들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호의적이어서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실제 생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며 면대면의 장면에서는 표현하지 못하는 친밀감을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 관계에 더욱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박정희, 2006).

SNS 중독을 인터넷 중독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은 마음이 복잡하거나 허전할 때 부지불식중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결과 마음의 위안을 얻는 의존성과 컴퓨터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컴퓨터를 중단하기가 점차 힘들어지며 오래 있어도 작업효율이 떨어지는 내성현상을 보인다. 또한 이들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 긴장이 해소되고 금단증상들이 사라지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며 심지어는 쾌감을 느끼게도 된다(김미영, 2003). 즉,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에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고 조금 전에 SNS를 확인했는데도 또다시 댓글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

감 및 일상생활에서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최윤정, 2011).

관련하여 이준 외(2012)에서는 SNS의 역기능을 설명하면서 SNS는 PC는 물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무선 인터넷 환경을 이용하여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PC만 활용할 때보다 사용시간이 훨씬 늘어날 수 있어 이러한 사용 환경은 SNS 사용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SNS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범위가 넓어질수록 서로 간의 메시지 교환이 많이 발생하게 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상태(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상태를 모두 포괄한 개념임)에 따라 SNS 이용시간과 이용목적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SNS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한 요인으로서 개인의 건강상태에 주목하고 SNS 중독 등과 같은 역기능의 방지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성격과 건강상태에 따른 SNS 이용 행태를 대학생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 KEEP)’ 9차(2012)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KEEP은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관계 및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04년에 전국 중3, 고3 6,000명을 대상으로 1차(2004)년도 조사를 시작<sup>5)</sup>하여, 매년 추적조사를 통해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패널조사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4년제 이상 일반대학교의 SNS 이용자들로 분석 표본은 901명이다. KEEP 9차(2012)년도 중3·고3 코호트 조사에서 조사 성공된 4년제 이상 일반대학교 대학생은 총 1,421명이지만, 분석에 필요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및 클리닝 과정을 거쳐 대학생 901명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5) 1차(2004)년도 시작 표본은 중3 2,000명, 일반고3 2,000명, 전문고3 2,000명이었으며, 4차(2007)년도에 특목고3 및 전문계고3 1,500명(신규패널)을 추가하였고, 7차(2010)년도에는 2~3년제 대졸자(2007년 2월 졸업자) 및 4년제 대졸자(2009년 2월 졸업자) 757명(보정패널)을 추가함.

<표 2>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구분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전체		901	100.00	전체		901	100.00
코호트	중3	676	75.03	학교소재지	수도권	370	41.07
	고3	225	24.97		충청권	181	20.09
성별	남자	558	61.93		호남제주권	93	10.32
	여자	343	38.07		경상북도권	133	14.76
전공	인문/사회	414	45.95		경상남도권	114	12.65
	자연/공학	356	39.51		미분류	10	1.11
	교육/예체능	100	11.10				
	그외	31	3.44				

## 2. 변수 설명 및 자료 처리

종속변수인 SNS 이용 행태는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과 SNS 사용의 주된 목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KEEP에서는 SNS를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 소통과 공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웹기반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SNS 설문 문항은 SNS 사용 여부, SNS 유형별 사용 여부, SNS 이용 시간, SNS 이용의 주된 목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연구문제에 맞추어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과 SNS 사용의 주된 목적을 종속 변수로 선택하였다. 또한, SNS의 주된 이용 목적은 ① 정보교류, ② 친목/인맥관리, ③ 개인사 정리, ④ 재미, ⑤ 업무, ⑥ 개인홍보, ⑦ 기타로 분류하고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대학생이라는 분석대상의 특성과 이에 따른 자료의 응답 수를 고려하여 ⑤ 업무, ⑥ 개인홍보, ⑦ 기타를 같이 묶어 ⑤ 기타로 재분류하였다.

독립변수는 BIG5 성격인 외향성 (Extraversion), 신경증 (Neuroticism), 친화성 (Agreeableness), 성실성 (Conscientiousness), 경험에 의한 개방성 (Openness)의 성격과 건강상태이다. 그에 대한 KEEP 설문지의 설문 문항은 <표 3>과 같다.

<표 3> 독립변수 사용 문항

조작적 변수		문 항	척도	신뢰도
성 격	외향성 (Extraversion)	1)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2) 여러 사람 사이에서도 주목 들지 않는다. 3) 모임에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 4)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대화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5)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6)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각각의 소문항 4점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③ 매우 그렇다)	$\alpha = 0.84$
	신경증 (Neuroticism)	1) 걱정 많이 하는 편이다. 2) 화를 잘 내는 편이다. 3) 쉽게 짜증을 낸다. 4) 자주 우울해진다. 5) 마음이 자주 심란해진다. 6) 기분의 변화가 심한 편이다.		$\alpha = 0.83$
	친화성 (Agreeableness)	1)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 2)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3)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준다. 4)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5)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잘 할애하는 편이다. 6)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처럼 여긴다.		$\alpha = 0.79$
	성실성 (Conscientiousness)	1) 어질러지면 즉각 청소를 한다. 2)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 한다. 3) 일에 대해서는 가혹 하리 만큼 열심히 한다. 4) 세밀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5) 항상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있다. 6) 질서 정연한 것을 좋아한다.		$\alpha = 0.77$
	개방성 (Openness)	1) 상식이나 어휘를 많이 아는 편이다. 2) 상상력이 풍부하다. 3)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때가 많다. 4)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다. 5) 어려운 단어를 많이 사용 한다. 6) 이해가 빠른 편이다.		$\alpha = 0.70$
	건강상태	현재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점척도 ① 매우 허약하다~ ⑤ 매우 건강하다.	-

건강 상태에 대한 설문 문항을 살펴보면, KEEP에서는 ‘현재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개인의 건강 상태를 5점척도 즉, ① 매우 허약하다, ② 허약하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다, ⑤ 매우건강하다 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분석에서 ① 매우 허약하다 의 표본이 너무 적어, ① 매우 허약하다와 ② 허약하다를 ‘허약’으로, ④ 건강하다와 ⑤ 매우건강하다를 ‘건강’으로 재코딩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를 허약 그룹, 보통그룹, 건강그룹으로 재분류하였다.

KEEP 설문에는 BIG5 성격 검사 문항이 3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30개의 설문 문항은 5개 성격 요인에 맞추어 각각 6개의 설문 문항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 문항들은 각각 4점 척도(① 전혀그렇지 않다~ ③ 매우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다. 본 분석은 성격요인별로 성격 성향의 정도 차이에 따라 SNS 이용 시간과 SNS 의 주된 이용 목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분석을 위해 설문 문항과 응답값의 재구성(재범주화)이 필요하다. 우선, 각 대학생 응답자의 요인별 성격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 성격요인들의 하부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크론바 α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요인별 문항 값의 합계를 성격 점수로 사용하여 개인의 성격 성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파악한 성격 성향의 정도에 맞추어 성격의 정도를 재범주화 하였다. 재범주화 과정에서 사용한 성격 성향의 정도의 분류 기준은 각 대학생들의 성격점수를 분석하여 중앙값을 기준으로 평균이 그 성격의 중앙 그룹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각각의 성격 성향의 정도는 그 성향이 중앙 그룹을 중심으로 그 성향이 높은 경우와 그 성향이 낮은 경우의 3그룹으로 다음의 <표 4>와 같이 구분하였다.

<표 4> 성격 성향에 따른 재범주의 기준

변수	표본수	범주	범주값	중위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외향성	901	낮은 외향성	10미만	11.00	10.81	2.757	1.00	18.00
		중심	10~12					
		높은 외향성	12 초과					
정서불안	901	높은 정서불안	6 미만	7.00	7.53	3.084	0.00	18.00
		중심	6~8					
		낮은 정서불안	8 초과					
친화성	901	낮은 친화성	10 미만	11.00	11.40	2.332	1.00	18.00
		중심	10~12					
		높은친화성	12 초과					
성실성	901	낮은 성실성	9 미만	10.00	10.11	2.589	0.00	18.00
		중심	9~11					
		높은 성실성	11 초과					
개방성	901	낮은 개방성	9 미만	10.00	10.38	2.346	2.00	18.00
		중심	9~11					
		높은 개방성	11 초과					

### 3.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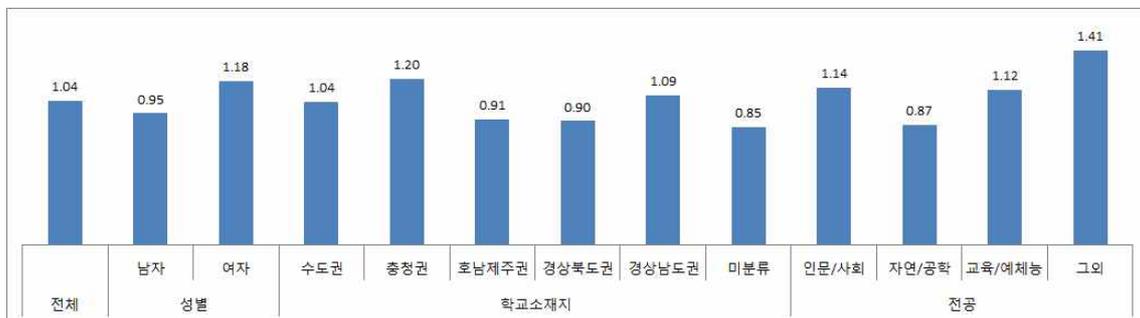
대학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성격과 건강상태에 따른 SNS 이용 행태 분석은 BIG5 성격 유형별 성격 성향의 정도가 다른 대학생 그룹이 SNS 이용에 차이가 있는지, 건강 상태가 다른 대학생 그룹이 SNS 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기술통계 분석과 ANOVA분석, t-test,  $x^2$  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사용프로그램으로는 SAS 9.2 버전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 분석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4년제 이상 대학생이므로 이 후 연구결과에서 계속 언급되는 대학생은 4년제 이상 대학생을 지칭한다.

대학생들의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은 1.04시간이며, 여대생(1.18시간)의 이용시간이 남학생(0.95 시간)의 이용시간보다 보다 0.23 시간(13.8분) 정도 길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충청권이 1.20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경상남도권, 수도권 순이었으며, 호남제주권과 경상북도권은 0.90시간정도, 즉 하루평균 54분정도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공별로는 인문/사회/자연/공학/교육/예체능을 제외한 계열이 1.41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자연/공학계열이 0.87시간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1] 표본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

대학생의 SNS 이용은 친목/인맥관리의 목적이 69.81%로 가장 높았고, 정보교류 13.43%, 재미 12.76%, 개인사 정리 2.89%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SNS 이용의 주된 목적이 친목/인맥관리(72.22%), 정보교류(13.98%), 재미(10.75%), 개인사정리(1.97%) 순인데 반해, 여성은 친목/인맥관리(65.89%), 재미(16.03%), 정보교류(12.54%), 개인사정리(4.3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보교류나 친목/인맥관리에 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재미와 개인사정리 쪽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분석되었다. 학교소재지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이 SNS 이용의 주된 이유의 비중 순의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용 목적별로는 충청권 대학생이 타 지역의 대학에 비해 정보교류의 목적으로 SNS 이용하는 경우가 높고, 호남제주권 대학생은 타 지역 대학에 비해 친목/인맥관리 및 재미의 목적이 높게 나타났다. 경상북도권 소재 대학생은 타지역에 비해 친목/인맥관리의 목적이 낮고, 정보교류나 재미의 목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인문/사회학이 친목/인맥 관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71.3%로 타 전공에 비해 가장 높았고, 자연/공학과 교육/예체능의 경우는 타 전공에 비해 정보교류의 목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비중이 15%이상을 차지하였다. 자연/공학의 경우는 친목/인맥 관리의 목적이 67.70%로 타전공에 비해 가장 낮았으나, 재미로 사용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표본 특성으로 살펴본 SNS 이용의 주된 목적

구분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전체	정보교류	친목/ 인맥관리	개인사 정리	재미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1	1.04 (1.333)	901 (100)	121 (13.43)	629 (69.81)	26 (2.89)	115 (12.76)	10 (1.11)
성별	남자	0.95 (1.260)	558 (100)	78 (13.98)	403 (72.22)	11 (1.97)	60 (10.75)	6 (1.08)
	여자	1.18 (1.433)	343 (100)	43 (12.54)	226 (65.89)	15 (4.37)	55 (16.03)	4 (1.17)
학교 소재지	수도권	1.04 (1.465)	370 (100)	48 (12.97)	264 (71.35)	13 (3.51)	39 (10.54)	6 (1.62)
	충청권	1.20 (1.451)	181 (100)	29 (16.02)	125 (69.06)	4 (2.21)	23 (12.71)	0 (0.00)
	호남제주권	0.91 (1.366)	93 (100)	8 (8.60)	69 (74.19)	1 (1.08)	15 (16.13)	0 (0.00)
	경상북도권	0.90 (0.881)	133 (100)	21 (15.79)	84 (63.16)	4 (3.01)	22 (16.54)	2 (1.50)
	경상남도권	1.09 (1.120)	114 (100)	14 (12.28)	80 (70.18)	4 (3.51)	15 (13.16)	1 (0.88)
	미분류	0.85 (0.569)	10 (100)	1 (10.00)	7 (70.00)	0 (0.00)	1 (10.00)	1 (10.00)
전공	인문/사회	1.14 (1.503)	414 (100)	47 (11.35)	295 (71.26)	14 (3.38)	53 (12.8)	5 (1.21)
	자연/공학	0.87 (1.009)	356 (100)	55 (15.45)	241 (67.70)	8 (2.25)	49 (13.76)	3 (0.84)
	교육/예체능	1.12 (1.156)	100 (100)	16 (16.00)	68 (68.00)	4 (4.00)	10 (10.00)	2 (2.00)
	그외	1.41 (2.257)	31 (100)	3 (9.68)	25 (80.65)	0 (0.00)	3 (9.68)	0 (0.00)

## 2. 성격에 따른 SNS 이용 행태

각 성격 성향의 정도에 따라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각 성격의 성향정도를 3그룹으로 나누고, ANOVA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표 6>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외향성과 정서불안의 성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성실성은 유의한 차이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향성은 외향성의 성향이 강한 대학생 그룹일수록 SNS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높은 것(높은 외향성 1.25시간>일반 외향적 1.05시간> 낮은 외향성 0.88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노출과 외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SNS를 이용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었고 SNS를 활용한 대인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최세경 외(2012)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정서불안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대학생 그룹일수록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적은 것으로, 즉, 정서 불안정도가 높을수록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높은 정서불안(낮은 정서안정감) 1.44시간> 대학생 성향 0.94시간 > 낮은 정서불안(높은 정서안정감) 0.83시간). 이는 걱정과 초조함을 잘 느끼고 감정이 변덕이 심한 성향을 띠는 사람이 정서적 안정을 얻기 위해, 혹은 자신의 판단을 잘 믿지 못하므로 타인의 생각이나 정보에 보다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호의적 이어서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실제 생활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며 면 대면의 장면에서는 표현하지 못하는 친밀감을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 관계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는 박정희(2006)의 연구 결과와도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실성은 대학생의 일반 성향 그룹이 하루 평균 0.95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높은 성실성 성향 그룹(하루 평균 1.02시간)과 낮은 성실성 성향의 그룹(하루 평균 1.21시간)의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이 높다. t-test를 통한 두 그룹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본 결과, 대학생의 일반 성향과 높은 성실성 성향 그룹의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낮은 성실성의 그룹은 일반 성향 그룹과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 간의 차이가 있는 것( $t=2.35$ ,  $p=0.0191$ )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성실성의 사람들은 높은 사람에 비하여 체계적이지 못하고 목적성이 낮으며 의지가 약한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목적에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계획적인 이용을 하기 보다는 목적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SNS 상의 표류 현상이 길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성격 성향 정도가 그룹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친화성과 개방성을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평균적으로는 높은 성향을 가진 쪽이 낮은 성향을 가진 쪽보다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이 약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성격의 성향 정도별 SNS 이용 시간

변수	범주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F Value	p값
전체		901	1.04	1.333		
외향성 *	낮은외향성	258	0.88	1.029	3.97 *	0.0192
	일반 성향	471	1.05	1.313		
	높은외향성	172	1.25	1.713		
정서불안 ***	낮은정서불안	185	0.83	0.821	14.34 ***	<.0001
	일반 성향	488	0.94	1.141		
	높은정서불안	228	1.44	1.867		
친화성	낮은친화성	149	1.03	1.261	0.64	0.5261
	일반 성향	557	1.01	1.367		
	높은친화성	195	1.13	1.289		
성실성	낮은성실성	239	1.21	1.743	2.91	0.0549
	일반 성향	410	0.95	1.067		
	높은성실성	252	1.02	1.262		
개방성	낮은개방성	176	0.98	1.212	0.36	0.6947
	일반 성향	448	1.04	1.218		
	높은개방성	277	1.09	1.567		

※ \*p<0.05, \*\*p<0.01, \*\*\*p<0.001

※ 각 범주의 '일반 성향'은 4년제 이상 대학생의 중심 성향

다음의 <표 7>은 BIG5 성격별 각 성격의 성향 정도에 따른 그룹별로 SNS 이용의 주된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것이다. 우선 SNS 주된 이용 목적과 성격 성향의 정도는 정서불안과 친화성 그리고 개방성에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정서불안에서 친목/인맥관리가 목적인 경우는 낮은 정서불안이 72.97%, 일반성향이 72.34%, 높은 정서불안이 61.84%로 정서불안성이 낮을수록, 즉 정서적으로 안정될수록 친목/인맥관리목적으로 SNS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교류가 목적인 경우는 낮은 정서불안이 9.19%이고, 일반성향은 13.73%, 높은 정서불안은 16.23%로 정서불안정도가 높을수록 정보교류 목적으로 SNS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정서불안정도가 높을수록 SNS 이용시간이 길어지는 경향과 유사하게 초조감과 불안감이 높고,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성격 특성에 따라 타인의 의견과 인터넷 상의 정보에 더욱 의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친화성에서 친목/인맥관리가 목적인 경우는 낮은 친화성의 경우 65.10%였고, 일반성향은 68.94%, 높은 친화성은 75.90%였다. 즉, 친화성의 성향이 높을수록 친목/인맥관리를 목적으로 SNS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교류가 목적인 경우는 낮은 친화성의 경우가 18.12%였고, 일반성향 12.93%, 높은 친화성 11.28%로, 친화성이 높을수록 정보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비중이 낮았다. 또한 친화성이 높은 그룹일수록 재미를 목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비중이 낮았다. 개인사 정리 목적의 경우는 일반 성향의 그룹이 3.77%로 개

인사 정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비중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았으며, 높은 친화성(2.05%), 낮은 친화성(0.67%)이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개방성에서 개인사정리가 목적인 경우는 낮은 개방성이 1.70%, 일반성향 3.13%, 높은 개방성이 3.25%로 높은 이용률을 차지하지는 않았으나, 개방성이 높을수록 개인사정리 목적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다. 정보교류와 친목/인맥관리의 목적은 일반성향이 각각 15.4%, 70.31%, 높은 개방성이 12.27%, 70.04%, 낮은 개방성이 10.23%, 68.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성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개방성 정도가 높은 그룹이 정보교류와 친목/인맥관리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재미 목적의 경우는 낮은 개방성이 19.32%, 높은 개방성이 11.55%, 일반성향이 10.94%가 재미를 목적으로 이용하여, 낮은 개방성이 높은 개방성보다 SNS를 재미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성격의 성향 정도별 SNS 주된 이용 목적

변수	범주	표본수	전체					$\chi^2$ (p값)	
			정보 교류	친목/ 인맥관리	개인사 정리	재미	기타		
전체		901	100.00	13.43	69.81	2.89	12.76	1.11	
외향성	낮은 외향성	258	100.00	15.12	65.50	3.49	15.12	0.78	10.656 (0.2220)
	일반성향	471	100.00	11.68	70.91	2.76	13.59	1.06	
	높은 외향성	172	100.00	15.70	73.26	2.33	6.98	1.74	
정서불안 *	낮은 정서불안	185	100.00	9.19	72.97	3.78	12.97	1.08	18.241* (0.0195)
	일반성향	488	100.00	13.73	72.34	1.64	10.86	1.43	
	높은 정서불안	228	100.00	16.23	61.84	4.82	16.67	0.44	
친화성 *	낮은 친화성	149	100.00	18.12	65.10	0.67	14.77	1.34	18.857* (0.0156)
	일반성향	557	100.00	12.93	68.94	3.77	13.82	0.54	
	높은친화성	195	100.00	11.28	75.90	2.05	8.21	2.56	
성실성	낮은 성실성	239	100.00	14.23	64.44	2.51	17.15	1.67	9.8242 (0.2376)
	일반성향	410	100.00	13.17	71.95	3.41	10.98	0.49	
	높은 성실성	252	100.00	13.10	71.43	2.38	11.51	1.59	
개방성 ***	낮은 개방성	176	100.00	10.23	68.18	1.70	19.32	0.57	23.0118** (0.0033)
	일반성향	448	100.00	15.40	70.31	3.13	10.94	0.22	
	높은 개방성	277	100.00	12.27	70.04	3.25	11.55	2.89	

※ \*p<0.05, \*\*p<0.01, \*\*\*p<0.001

※ 각 범주의 '일반 성향'은 4년제 이상 대학생의 중심 성향

### 3. 건강 상태에 따른 SNS 이용 행태

건강 상태의 정도에 따라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 상태의 범주는 매우허약, 허약, 보통, 건강, 매우건강이었으

나, 분석에 사용한 표본에서 매우 허약의 표본이 2개로 파악됨에 따라 매우 허약과 허약을 묶어 허약으로, 매우건강과 건강을 묶어 건강으로 범주를 재분류 하였다. 여기서의 건강 상태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포괄하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 하의 건강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분석결과 <표 8>과 같이 건강상태에 따라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가 양호한 대학생일수록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은 적어지며, 건강 상태가 허약한 대학생일수록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 상태가 보통인 대학생의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은 1.15 시간이었으며, 허약(매우허약+허약)한 대학생은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은 1.50시간으로 보통인 대학생보다 0.35시간 더 많이 이용하였고, 건강한 대학생은 하루 평균 0.93시간 SNS를 이용하여 보통인 학생보다 0.22시간 더 적게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SNS 중독경향성과 SNS 사용시간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던 오윤경(2012) 연구결과와도 관련있는 것으로, SNS 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나고 높은 우울 증상이 있는 인터넷 중독자들일수록 낮은 자존감, 거절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 인정욕구 등과 함께 우울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인터넷에 더욱 빠져들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 것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즉, 건강 상태가 허약한 사람들은 우울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우울감이 높아질수록 마음이 복잡하거나 허전할 때 부지불식 중에 SNS에 접속하여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결과 마음의 위안을 얻는 의존성과 SNS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이를 중단하기가 점차 힘들어지며 오래 있어도 작업효율이 떨어지는 내성 현상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SNS 중독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최윤정(2011)이 주장했듯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에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고 조금 전에 SNS를 확인했는데도 또다시 댓글을 달게 되는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감 및 일상생활에서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며, 이 같은 부작용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표 8> 대학생 건강 상태별 SNS 이용 시간

범주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F Value	Pr > F	
표본수	901	1.04	1.333			
건강 상태	허약	84	1.50	2.191	7.99 ***	0.0004
	보통	226	1.15	1.196		
	건강	591	0.93	1.201		

※ \*p<0.05, \*\*p<0.01, \*\*\*p<0.001  
 ※ 허약 = 매우허약+허약, 건강=매우건강+건강

다음으로 <표 9>는 대학생 건강 상태별로 SNS 주된 이용 목적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모든 건강 상태에서 친목/인맥관리의 비중이 가장 높고, 건강상태가 허약과 보통인 경우는 재미보다는 정보교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는

정보교류보다는 재미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교류와 개인사정리의 목적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이용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SNS를 정보교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허약(23.81%)>보통(13.72%)>건강(11.84%) 순으로 많았다. 개인사 정리로 SNS를 이용하는 경우는 허약이 7.14%로 다른 건강상태보다 높았고, 보통 3.54%, 건강 2.03% 순이었다. 친목/인맥관리가 목적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SNS 이용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대학생은 친목/인맥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72.76%로 다른 건강상태에 비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보통은 69.03%, 허약은 51.19%로 친목/인맥관리 목적의 SNS 이용률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SNS를 재미로 이용하는 경우는 허약이 16.67%로 가장 높았고, 건강 상태가 12.52%, 보통이 1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건강상태가 양호한 대학생일수록 친목/인맥관리 목적으로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대학생일수록 정보교류, 재미나 개인사 정리 등의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대인관계에 다소 소극적이 되고 신체활동이 감소되며, 우울감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SNS 이용 행태에 건강 상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표 9> 대학생 건강 상태별 SNS 주된 이용 목적

건강 상태	표본수	전체	전체					$\chi^2$ (p값)
			정보교류	친목/인맥 관리	개인사정리	재미	기타	
전체	901	100.00	13.43	69.81	2.89	12.76	1.11	22.305 (0.0044)
건강 상태	허약	84	23.81	51.19	7.14	16.67	1.19	
	보통	226	13.72	69.03	3.54	11.95	1.77	
	건강	591	100.00	11.84	72.76	2.03	12.52	0.85

※ \*p<0.05, \*\*p<0.01, \*\*\*p<0.001

※ 허약 = 매우허약+허약, 건강=매우건강+건강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BIG5 성격별 특성 강도와 건강상태에 따라 SNS 이용 행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4년제 이상 대학생을 중심으로 살펴 본 실증분석이다.

SNS 사용은 PC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전,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해 폭발적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SNS에 대한 연구들은 SNS가 인간의 어떤 현상(자아성숙, 학습효과, 중독, 소비, 정치적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인간

의 기본적인 특성에 먼저 초점을 두고 인간의 특성이 SNS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기초연구로서, 인간의 기본 특성인 성격 및 건강상태와 SNS 이용 행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인간의 기본 특성과 SNS 이용 행태와의 영향관계와 연관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SNS의 사용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SNS의 교육적 활용 등의 긍정적 측면을 촉진하고, 중독 등의 SNS 부정적 측면을 축소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4년제 이상의 대학생들은 하루 평균 1.04 시간을 SNS 이용에 사용하며, 여대생(1.18시간)의 이용시간이 남학생(0.95 시간)의 SNS 이용 시간보다 0.23 시간(13.8분) 긴 것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의 주 목적은 친목/인맥관리가 69.81%로 가장 높았고, 정보교류 13.43%, 재미 12.76%, 개인사 정리 2.89% 순이었다. 전공별로는 인문/사회학의 친목/인맥관리 목적이 71.3%로 타 전공에 비해 가장 높았고, 자연/공학과 교육/예체능은 타 전공에 비해 정보교류의 목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비중이 15%이상을 차지하였다. 자연/공학의 경우는 친목/인맥 관리의 목적이 67.70%로 타전공에 비해 가장 낮았으나, 재미로 사용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BIG 5 성격별 특성 강도에 따라 SNS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에서는 외향성과 정서불안이 성격 특성 강도에 따라 이용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성실성의 경우는 성격 특성의 강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비교에서 이용시간의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외향성은 외향성의 성향이 강한 대학생 그룹일수록 SNS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높은 것(높은 외향성 1.25시간>일반 외향적 1.05시간> 낮은 외향성 0.88시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 불안정도가 높을수록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높은 정서불안(낮은 정서안정감) 1.44시간> 대학생 성향 0.94시간 > 낮은 정서불안(높은 정서안정감) 0.83시간). 성실성은 대학생의 일반 성향 그룹이 하루 평균 0.95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높은 성실성 성향 그룹(하루 평균 1.02시간)과 낮은 성실성 성향의 그룹(하루 평균 1.21시간)의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이 높았다.

SNS 이용의 주목적을 분석해 본 결과, 정서불안과 친화성 그리고 개방성에서 성격특성의 강도가 SNS 이용의 주목적과 연관관계를 나타냈다. 정서불안성이 낮을수록, 즉 정서적으로 안정될수록 친목/인맥관리 목적으로 SNS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불안 정도가 높을수록 정보교류 목적으로 SNS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화성의 성향이 높을수록 친목/인맥관리를 목적으로 SNS를 많이 사용하였다. 친화성이 높은 그룹일수록 정보교류와 재미를 위한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비중이 낮았다. 한편 개방성이 높을수록 개인사정리 목적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개방성 정도가 높은 그룹이 정보교류와 친목/인맥관리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재미 목적의 경우는 낮은 개방성을 지닌 그룹이 SNS를 재미로 이용하고 있는 비중이 높았다.

셋째, 건강 상태에 따른 SNS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건강 상태가 양호한 대학생일수록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은 적어지며, 건강 상태가 허약한 대학생일수록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가 보통인 대학생의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은 1.15 시간이었으며, 허약(매우허약+허약)한 대학생은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은 1.50시간으로 보통인 대학생보다 0.35시간 더 많이 이용하였고, 건강한 대학생은 하루 평균 0.93시간 SNS를 이용하여 보통인 학생보다 0.22시간 더 적게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 상태가 좋은 대학생 그룹일수록 정보교류와 개인사정리의 목적보다는 친목/인맥관리가 목적인 경우가 비중이 높았다. SNS를 재미로 이용하는 경우는 허약이 16.67%로 가장 높았고, 건강 상태가 12.52%, 보통이 11.95%인 것으로 나타나 건강 상태가 허약할수록 재미를 목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기초연구 분석결과를 통해 시사되는 점은, SNS 이용 시간은 성격의 외향성과 정서불안의 성격특성의 강도에 영향을 받으나, SNS의 주된 이용 목적은 정서불안, 친화성, 개방성과 연관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서불안은 SNS 이용시간과 이용목적에 영향을 모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한 대학생은 허약한 대학생일수록 SNS를 친목/인맥관리 목적으로 주로 사용한 것에 비하여 건강 상태가 허약한 대학생일수록 SNS 이용시간이 길었고 재미나 개인사 정리 등을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SNS의 이용은 정신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SNS의 사용자체가 스마트폰 중독이나 SNS 중독에 빠지게 하는 잠재적 원인이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중독에 빠지지 않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할 기술적 장치(중독방지 어플리케이션 등)의 개발 등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SNS 설문 문항은 한국교육고용패널 9차년도에 새로 추가된 문항으로, SNS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문항을 설계한 것이 아니기에 SNS의 특성과 직접적인 효과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한 사람의 가정환경, 교육환경, 취업 상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 문항을 다루고 있고, 매년 동일인을 추적조사하는 패널인 만큼 기존의 SNS 설문에서 다루지 못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특성인 성격과 건강상태가 SNS 이용 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본 기초연구이며, 후속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이 가진 전반적인 설문문항을 고려한 횡단자료 분석과 SNS 이용 행태의 변화를 측정 할 수 있는 종단자료를 가지고 다른 특성과의 비교와 영향관계를 시도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가 SNS 관련 후속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성격 특성이 SNS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SNS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할 때, SNS라는 도구나 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SNS 이용 행태와 더 나아가 SNS 문화를 만들어가는 인간의 성격특성, 정신적 건강문제와 같은 본질적인 측면에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SNS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SNS 관련 연구의 단골 주제로 대다수가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성격 특성, 건강 상태 등과 같은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기반한 SNS 영향 요인 관련 연구 등이 필요하며, SNS를 활용한 창업 사례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사례연구,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SNS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SNS 기반의 학습활동 및 성과는 성격 특성과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적 차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관계성과 관련된 용이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로서의 SNS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 개인의 사회적, 소통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성격 특성과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SNS 이용 행태를 반영한 교수·학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 참고문헌 ❖

- 강현욱(2013). 대학생의 SNS중독성향과 사회적지지, 외로움, 건강지각, 대인관계의 관계와 신체활동을 통한 치료레크리에이션 적용. 한국체육과학회지, 22(1). 121-133.
- 김미영(2003).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중(2007). 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품질과 고객선행유형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박미현, 전유리, 김유솔, 신윤지, 노승용(2010). 여대생들의 SNS와 소통: 서울여자대학교 재학생의 Twitter 및 Facebook 활용을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총, 25권. 43-74.
- 박정희(2006).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및 의사소통 불안이 인터넷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희전(2013). 청년층의 BIG5 성격 특성. The HRD Review 2013년 7월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송명준, 권정혜(2000).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현황 및 인터넷 중독이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임상심리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78-93.
- 심미선, 김은미(2011).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마-04. 방송통신위원회.
- 오윤경(2012). SNS 중독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의 관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호중(2013). 스마트폰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SNS 잉여집단에 대한 비교연구. e-비즈니스연구. 14(2). 225-246.
- 이인숙, 조주연(2012). 일부 간호대학생들의 SNS 중독과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5(1). 22-30.
- 이종연(2012). 대학에서 SNS를 활용한 학습 커뮤니케이션 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학회지, 25(1). 93-123.
- 임연수(2010). 역통합교실에서의 시각장애유아와 일반유아의 또래관계에 관한 문화기술지.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방송통신위원회(2011). 소셜미디어 접근 및 생산적 활용 확산 방안 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라-25, 1-12.
- 방송통신위원회(2012). 제 5차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상반기 조사결과). 보도자료 p.9.
- 장은정, 장혜정(2013) 웹 기반 토론과 SNS 기반 토론에서 사회적 실재감, 몰입, 만족도 및 자기평가의 차이. 교육공학연구. 29(1). 1-25.
- 전중수, 고영삼, 엄나래(2012).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조성현, 서경현(2013). SNS 중독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내현적 자기에, 자기제시 동기 미 소외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239-250.
- 주중우 외(201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사진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수업시간 이외에 SNS를 통한 교수자와 학생의 소통을 위한 연구. 한국사진학회지. 26. 47-6
- 차승봉(2011). 대학생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참여와 학습성공에 관한 구조방정식모델. 건국대학교 대학원 교육공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 봉 (2011). SNS의 이해와 서울시 활용 현황.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최세경 외(2012). 커뮤니케이션 성향과 모바일 SNS 애착이 상호작용과 이용 후 대인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29(1). 4-200.
- 하승태(201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이 수용자의 정치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언론 과학연구. 12(4). 575-606.
-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사전 (2012). Retrieved October 1, 2012, from <http://www.britannica.co.kr/>.
- Back, M., Stopfer, J., Vazire, S., Gaddis, S., Schmukle, S., Egloff, B. & Gosling, S.D. (2010). Facebook profiles reflect actual personality, not self-idealization. *Psychological Science*, 21(3), 372-374. Benjamins.
- Krishnan, Archana(2011). Individual Differences in Users of Online Networking Sites: The Interplay between Personality Traits, Communication and Social Motives, Attitudes and Level of Activity. UNIVERSITY OF CONNECTICUT, 2011, 156 pages; 346-371.
- Nicole Ellison(2007). Facebook Use on Campus : A Social Capital Perspective on Social Network Sites. Michigan State University.

❖ Abstract ❖

A study on the SNS use patterns according to the Big5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condition

Chang Hea-Jung, Son Hee-Jyun(KRIVET)

This study was about use behavior of SNS related to BIG5 Characteristics intensity and physical condition with university students by analysis of actual proof using KEEP 9th materials.

According to the analysis, high level of extroverted and mental instability groups used SNS more. In terms of sincerity, the lower level of sincerity group used SNS more than the higher level. The study showed the results of characteristics intensity purpose of using SNS that mental instability, congeniality and openness. The higher level of mental instability group for information exchange, congeniality group for relationships and openness group for individual arrangement showed the higher rate for using SNS. However, the rate of using SNS was low when the groups of mental instability for relationships and of congeniality for information exchange and interest were located in higher level.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physical condition that vulnerable people used SNS more than the others. In the cases of information exchange and individual arrangement, the vulnerable group was in the highest rate but, healthy group was opposite. In the other case of relationship, the healthy group was in the highest rate and the vulnerable group was in the lowest one.

**Key words:** KEEP, SNS, Big5, characteristics, health, physical condition